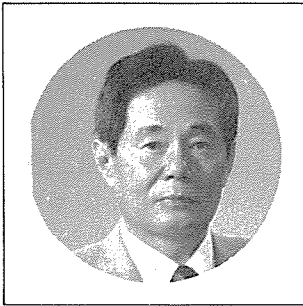


관료로 변신한 과학자



李永昌

〈漢陽大 행정대학원장〉

최근 조간신문을 보노라면 자주 과학기술문제에 관한 기사를 대하게 되는데, 특히 주목하게 하는 것은 과학기술정책 형성을 둘러싸고 경제관료와 과학기술관료간에 마찰이 있어 이를 우려한다는 기사들이 연달아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마찰이 생기는데는 부처간 권한이나 주도권 장악 다툼의 이해관계 대립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런 관점과는 달리 관료로 변신된 과학자와 과학에 충분한 소양을 가지지 못한 관료간의 인간바탕의 차이가 더 심한 마찰요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과학자가 관료로 변신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게 된다.

관료로 변신하기 전의 과학자에게서 빈번하게 보는 과학자의 공통적 특성으로 과학주변의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과학하는 것에 열중할 뿐 아니라 학생, 조교들에게도 과학을 연구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고 스스로 면학하도록 권장하고, 1대 1의 논의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토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과학자가 일단 관료로 변신하여 관료사회에 투신하게 되면 과학의 소양유무에 관계없는 능력, 업적, 생존경쟁 관계에 우선권이 있으면 각광을 받게 된다.

그러나, 어느 조직에 있어서든 그 조직기구와 관련, 동적형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속한 관료조직이나 기타 관료조직이 일면 강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매우 약해서 오래 지속되지 않고 행정에 변화가 있으면 벌써 그 지위가 흔들리는 극히 불안전함이 있음을 겪게 된다.

또한 관료로 변신한 과학자의 처세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관료사회에서는 「단어」가 「행동」을 구성하고 최종목표는 「방법」이 아니

라 「서류」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관료를 막론하고 「서류는 생명유지체제와 같을 정도라는 사실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료들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사례는 정권교체시에 관료행동의 특징이 도처에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료들은 매우 분망하게 서류를 작성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구 정권에서 온 서류는 좋고 나쁜 것은 가릴 것도 없이 거의 무시된 채, 매력적이고, 새로운 발의를 전개코자 노력하며 관료들이 총동원되어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고 신 정권의 명령에 부합하는 새로운 목표와 대상을 공표코자 한다.

또한 관료과학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점은 새로운 계획의 입안, 개발, 실행인데, 이 부분에다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새로운 계획에는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고 새로운 자금을 획득하려면 관련부처와 의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때문에 방책으로 강구되는 것은 여당위원의 적극적인 지지, 유력한 의원의 측근으로부터의 협조, 주요 관련 부처나 상부기관으로부터의 보증 및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인원들의 신속한 획득이다.

또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려면 꼭 따라오는 것이 업적을 평가하게 되는바 이러한 요인을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예산변동은 관장하는 관료 및 관료기구에 있어서의 최대 관심사인 것이다.

‘예산편성’하면 많은 갈등이 교차되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특히 연구개발예산은 국내 상황이 점점 첨단과학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연중행사처럼 이를 중심으로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획기적 증액이 요구되어 다른 업무는 거의 방치되기 쉬운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 국가의 경직예산속에서 원하지 않는 계획예산이 재편성되

고 삭감, 수정될 때 그 심정은 매우 착잡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요즈음 정부가 과학 및 산업기술 발전 7개년 계획을 확정했다는데, 관료과학자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 짐작이 간다. 제한된 연구인력 및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인지 부처간의 이견이 타협에 이르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관료과학자에 대한 업적달성평가의 신뢰성 부족으로 관련부처간 주도권싸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기자는 기재를 하였다.

관료과학자는 관료사회를 어떻게 하면 친숙하게 할 수 있는지, 자기 주장이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후하게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과학자의 본성을 바탕으로 하든 원칙을 굽히지 않으려다가 손해만 보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탁월한 관료는 일상적인 것이 아닌 문제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가부가 분명하고, 강경한 결정이나 단호한 발언을 잘한다. 그러나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타협에 이르고 마는 것이 관료사회인 것 같다.

과학에 종사하는 과학자사회에서도 과학자들의 직업유형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7개형으로 분류한다. 즉 연구과학자, 교육과학자, 관리직과학자, 관료과학자, 정치가의 과학자, 그리고 국제파 과학자등이다.

이 가운데 연구 및 교육과학자가 다수이고 이들은 시종 일관성을 가지고 과학적 자료를 생산하여 가고 있지만, 세간에는 이들보다는 관리직, 관료, 정치가, 경영자 세계를 분망하게 뛰어다니는 과학자를 성공을 거둔 과학자라고 주목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변신된 과학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탕은 그래도 과학자이다.